

디지털 자산과 한국 금융 비즈니스 혁신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예금, 토큰이코노미를 통한 금융 비즈니스 혁신

강형구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공과대학 컴퓨터이셔널파이낸스공학과

April 17, 2026

비즈니스 혁신 수요의 재부상

- 새로운 투기 자산보다 결제, 유통, 현금관리, 고객 접점을 다시 설계하려는 수요
- '2022년' 이후의 고금리 환경에서는 며칠만 자금이 묶여도 기회비용이 커져 기관의 자본 효율성 민감도 확대
- 그래서 최근 수요는 낯선 자산보다 '미 국채', '머니마켓펀드', '담보 자산' 처럼 익숙한 안전자산의 디지털화에 먼저 집중
-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예금, 토큰이코노미의 현실적 가치는 새 토큰의 발명보다 더 짧은 결제, 더 빠른 담보 이동, 더 유연한 고객·현금관리

핵심 포인트

지금의 디지털 자산 논의 핵심은 새 토큰 발행보다, 결제·유통·자금조달·고객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금융 비즈니스 혁신.

비즈니스 혁신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사업 판단 기준
수익모델 변화	새 수수료, 반복 현금흐름, 유휴 자산 재활용 경로의 형성
비용구조 절감	발행, 결제, 예약, 수탁, 규제 준수의 운영 마찰 축소
고객접점 확대	투자자, 기업 고객, 해외 거래상대방과의 접점 확대
운영속도 개선	담보 이동, 자금 결제 구간, 환매, 예외 처리 시간의 단축
국경간 결제·정산 혁신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예금, 정산 레일을 통한 무역·송금 구조 변화
한국 금융회사 실행 가능성	은행, 증권, 자산운용, 인프라 사업자의 제도권 실행 가능성

핵심 포인트

비즈니스 혁신 평가는 새 기술 여부보다 수익, 비용, 속도, 고객 기반 변화의 크기가 더 중요.

수단별 사업모델 번역

수단	핵심 사업모델	주도 사업자	사업 효과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무역결제, 플랫폼 정산, 외화 현금관리	은행, 핀테크, 결제 플랫폼	송금 수수료 절감, 해외 고객 확대, 자금 회전율 개선
토큰화 예금	은행권 내부 정산, 기관형 결제, 예금 기반 디지털 서비스	은행, 수탁기관, 기관형 인프라 사업자	기존 예금 비즈니스의 디지털 확장, 기관형 현금관리 강화
토큰이코노미	리워드, 멤버십, 거래 유인, 파트너 생태계 확대	플랫폼, 증권, 은행, 핀테크	고객 락인, 교차판매, 네트워크 효과 강화
토큰화 증권	유통채널 확대, 소액화, 장외 유통, 반복 발행	증권, 자산운용, 발행 플랫폼	신규 투자자층 확보, 유통 수수료와 발행 수수료 다변화

핵심 포인트

핵심은 “어떤 토큰인가” 보다, 어떤 수단이 어떤 사업모델과 수익원을 여는가의 연결.

결제 혁신 수단 비교

결제 수단	기반	사업 강점	사업 제약
기존 은행 예금· 송금	상업은행 장부와 기존 결제망	제도권에서 가장 익숙하고 법적 처리 방식이 명확한 수단	온체인 자산과 같은 실행 단위 결합의 어려움과 긴 운영 시간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사의 준비금과 상환 약속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유동성과 상호운용성이 가장 넓고 접근성이 높은 수단	발행사 신용, 디페깅, 규제 수용성의 제약
토큰화 예금	규제받는 은행 예금	은행권 내부 정산과 기관형 허가형 시장에서 설명 가능성이 높은 수단	은행별 네트워크 분절과 개발자 생태계의 제약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wCBDC)	중앙은행 채무	가장 강한 결제 최종성과 무위험 자산에 가까운 성격 지향	정책 결정과 공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도입 속도가 가장 느린 수단

핵심 포인트

현실적으로는 단일 승자보다 용도별 공존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금융 비즈니스

사업 구간	무엇이 바뀌는가	사업 효과
국경간 송금·무역결제	은행 영업시간과 중개망 의존이 줄고, 지급과 확인의 속도 개선	송금 수수료, 외화 대기자금, 고객 이탈 비용의 축소
기업 재무·현금관리	해외 법인 간 자금 이동과 단기 유동성 운용의 실시간성 확대	재무부서의 자금 가시성 개선과 유휴 현금 회전을 상승
플랫폼 결제·정산	플랫폼 안에서 보관, 지급, 환급을 더 짧은 주기로 처리 가능	정산 수수료와 고객 불만 축소, 결제 데이터 축적 강화
글로벌 고객 확보	지갑 기반 접근으로 해외 고객과 개발자 점점 확대	신규 고객 유입과 네트워크 효과의 가속

핵심 포인트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코인 자체보다, 국경간 결제와 현금관리의 시간을 줄여 새 고객과 새 수수료를 만드는 데 있음.

토큰이코노미가 만드는 고객 락인과 수익모델

장치	고객 행동 변화	사업 효과
지갑 연동 리워드	결제, 투자, 예치 활동이 한 계정 안에서 누적	고객 유지율 상승과 교차판매 기회 확대
등급형 멤버십	거래량, 보유 기간,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혜택 차등화	수수료 할인 대신 충성고객의 장기 체류 유도
파트너 생태계 포인트	은행, 증권, 플랫폼 혜택의 공동 사용 가능	제휴 확대와 고객획득 비용 분산
커뮤니티형 보상	초기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참여 인센티브 제공	네트워크 초기 확산과 데이터 축적의 가속

핵심 포인트

토큰이코노미의 현실적 가치는 투기 유인이 아니라, 결제·예치·투자 고객을 한 생태계에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락인 장치.

정산 모델별 사업 효과

모델	사업 의미	도입 여건	사업 제약
같은 원장형	자산과 돈을 한 번에 맞추는 방식	동시 처리 효과가 가장 크지만, 공공 결제 자산 결합과 제도 합의 필요	자산과 돈을 한 원장에 묶는 합의 부담
연결형	서로 다른 시스템의 자산과 돈을 거의 동시에 맞추는 방식	기존 시스템 활용이 쉽고 현실 적응력이 높음	한쪽 지연 축소를 위한 별도 조정 장치 필요
수탁 연동형	온체인 자산 이동과 오프체인 지급 지시를 함께 맞추는 방식	기존 제도 편입은 쉽지만 처리 단계가 많음	은행과 수탁기관 운영 시간 제약

핵심 포인트

핵심은 기술 우열보다, 어떤 정산 모델이 거래 비용과 자금 대기 시간을 가장 많이 줄이는가의 선택.

운영속도 혁신의 핵심: 담보 이동

- 기관이 토큰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산을 더 잘게 쪼개 파는 데 있기보다, **우량 담보를 더 빨리 인정하고 더 빨리 풀어 주는 것에 대한 수요**
- 레포, 장외 파생, 거래소 증거금 같은 시장에서는 담보가 느리게 움직일수록 **예비 유동성**을 더 많이 묶어 두어야 하는 필요
- 같은 국채형 자산이라도 **잠금, 재평가, 마진 반영, 해제까지의 운영 사슬 단축** 가능성의 더 큰 중요성
- 그래서 이 분야는 많은 리테일 서사보다 더 현실적인 사용처. 기관은 “새로운 투자 경험” 보다 **담보 이동성, 재사용 가능성, 자본 효율**을 먼저 보는 경향
- 초기 관심이 MMF, 단기 국채, 국채형 펀드 쪽에 몰리는 것도 같은 논리. 담보로 쓰기 쉬운 자산일수록 토큰화 편익의 더 빠른 표출

핵심 포인트

토큰화 담보의 핵심은 자산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 대차대조표와 거래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음.

운영 규칙 자동화의 사업 장치

운영 장치	무엇을 자동화하나	사업 효과
기본 규칙	발행, 이전, 잔액 같은 기본 처리	자산 이전과 기록의 표준화
보유자 명부	적격 보유자 기록과 확인	문서 의존 축소와 고객 관리 비용 절감
자격 증명	투자자 자격과 역할 구분	관할 제한, 고객 구분, 내부 역할 분리의 자동화
이전 제한 규칙	보유 한도, 이전 제한, 예외 조건	운영자 판단 업무의 축소와 반복 거래 가능성 확대
예외 대응 권한	동결, 강제 이전, 복구 같은 개입 처리	사고 대응 절차와 책임 주체의 명확화

핵심 포인트

핵심은 토큰 코드보다, 자격 확인·이전 제한·예외 처리를 자동화해 운영비를 줄이는 장치.

한국 중심 사업화 신호

구분	한국형 사례 축	한국 금융회사에 주는 의미
기관형 현금관리	은행, 증권, 자산운용이 토큰화 예금, 수익증권, 단기 현금관리 상품을 반복 발행하는 축	리테일 투기보다 기관형 현금관리 와 반복 수수료가 먼저 열릴 가능성
담보·장외거래	증권사, 수탁기관, 예탁·결제 인프라가 담보 이동과 장외 유통을 연결하는 축	새 자산보다 자금 대기시간 축소 와 거래비용 절감 의 사업 효과가 먼저 가시화
무역·수출입 결제	은행, 수출입 기업, 온오프램프가 스테이블코인과 정산 레일을 결합하는 축	국경간 결제, 외화 현금관리, 기업금융의 새로운 고객 접점 형성
전략산업 자금조달	인공지능, 바이오, 방산 같은 전략산업을 SPV와 수익권 구조로 연결하는 축	국익 산업과 금융 구조화를 결합한 장기 자금조달 사업 의 가능성

핵심 포인트

한국에서는 글로벌 실명 사례 자체보다, 은행·증권·자산운용·무역·전략산업으로 이어지는 국내 사업 축을 먼저 보는 편이 더 유효.

사업모델 검증 신호

- 반복 발행: 같은 발행자와 인프라의 두 번째, 세 번째 발행 지속
- 결제와 환매 기록: 자금 결제 구간 (money leg), 환매, 정산 종료 기록의 반복 축적
- 본류 인프라 재사용: 은행, 수탁기관, 예탁·결제 인프라의 공통 배관화
- 권리와 예외 처리: 공식 보유자, 수탁, 복구, 예외 처리 권한의 명확성

핵심 포인트

파일럿 숫자보다 반복 거래 구조와 본류 인프라 편입 여부가 더 중요한 신호.

어떤 권리를 팔 것인가

권리 유형	사업상 장점	사업상 부담
직접 권리형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보유 경험 제공	공식 장부 인정과 제도 정합성부터 풀어야 하는 부담
계약상 청구권형	기존 제도 편입과 상품화가 상대적으로 쉬움	발행사 신용과 계약 관리 비용 부담
신탁/SPV 포장형	파산격리와 구조화 설계에 유리	수탁, 공시, 상환 설계의 복잡성

- 토큰화의 첫 단계는 코드 선택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어떤 계약과 장부 위에서 팔 것인가의 확정 작업

한국 금융회사에 열리는 사업 경로

- 2026년 1월 법 개정 '자본시장법' 과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반 기록의 제도권 증권 발행 구조 안 편입 시작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발행·보유자 기록 관리 직접 참여 경로 개방. 다만 투자자 보호와 인프라 요건의 동시 충족 전제
- 장외거래 중개업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위한 합법적 유통 창구의 신규 설계, 발행 후 장외 유통까지의 제도권 편입 방향
- 시행 준비 2026년 3월 4일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의 4개 분과에 의한 세부 규칙 설계 진행, 시행 시점은 2027년 2월 4일
- 정책 경계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거래 규율,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 논의와의 분리 독해 필요

핵심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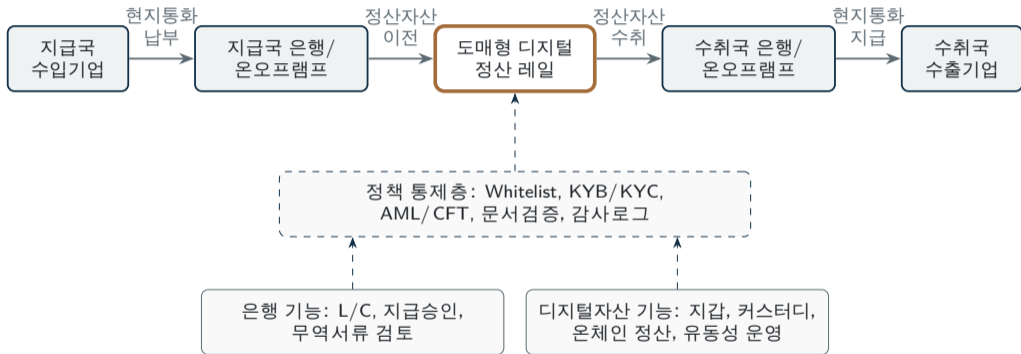
한국의 핵심은 STO 허용 자체보다, 은행·증권·플랫폼이 어느 구간에서 새 역할과 수익원을 가질 것인가의 재배치.

한국 실행의 사업 조건

실행 조건	실무 쟁점	사업 영향
권리 구조	직접권리와 계약상 청구권의 구분 필요	발행, 분쟁 처리, 투자자 설명의 난이도 결정
보유자·유통 규칙	공식 보유자와 거래 가능 주체의 사전 확정 필요	명부, 수탁, 투자자 자격, 유통 구조의 분화
결제 방식	자금 결제 구간 (money leg) 선택과 최종성 시점 확정 필요	얇은 자산 토큰화와 자산·돈 동시 이동 모델의 분기
운영 책임	예약, 중개, 청산, 사고 대응 담당 주체 확정 필요	반복 거래 가능성, 감독 가능성, 시장 신뢰의 결정 요인

- 한국의 2026년 법 개정과 2027년 시행 준비도 결국 허용 여부보다 **장부 관리, 유통 인가, 결제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정책 설계 과정

도매형 디지털 정산 레일 운영모델



한국 금융회사 실행 로드맵

단계	우선 과제	주도 사업자	성과 지표
1단계	토큰화 예금, 기관형 현금관리, 단기 수익증권 유통 실험	은행, 증권, 자산운용	반복 발행, 환매, 결제 완료 기록 축적
2단계	담보 이동, 장외거래, 예탁·결제 연계와 기관형 정산 레일 구축	은행, 수탁기관, 예탁·결제 인프라	자금 대기시간 축소와 담보 재사용 확대
3단계	무역결제, 국경간 송금, 플랫폼형 리워드와 토큰이코노미 결합	은행, 플랫폼, 핀테크, 수출입 기업	해외 고객 유입, 수수료 다변화, 고객 유지율 상승

핵심 포인트

한국의 현실적 순서는 리테일 투기보다, 기관형 결제와 담보에서 시작해 국경간 결제와 고객 생태계로 확장하는 단계 전략.

프론티어 토큰화의 현실적 확장 경로

구분	현실적 적용	정책 전제
출발점	개별 초고위험 프로젝트의 직접 토큰화보다	권리 순위, 손실 흡수 순서, 공시 범위의 명확화
구조화 방식	포트폴리오형 SPV와 현금흐름 우선순위 설계 우선 후순위 지분형 토큰과 선순위 상환권 토큰의 병행. 선순위는 기술료, 마일스톤, 장기계약 매출처럼 확인 가능한 수입 중심	수탁, 계산대리, 현금흐름 워터폴, 조기상환 트리거의 제도권 편입
한국 적용 예시	인공지능은 모델 사용료·클라우드 계약, 신약개발은 기술이전료·마일스톤, 방산은 장기 공급계약·정비 매출 중심	국가전략산업 보호, 수출통제, 안보심사, 투자자 적합성 규율의 동시 설계
검증 체계	기술평가, 회계검증, 계약이행, 오라클 보고를 분리한 다중 확인 체계	허가형 인프라 안에서 감사로그, 이의제기 절차, 예외 처리 권한의 명문화

핵심 포인트

프론티어 토큰화는 본류 혁신이 자리 잡은 뒤의 확장 옵션일 뿐이다. 한국의 과제는 토큰 발행 경쟁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토큰이코노미를 통해 결제, 유통, 고객 기반, 자금조달을 다시 설계하는 금융 비즈니스 혁신.

한국 금융 비즈니스 혁신 제언

제언	정책 의미
기관형 활용처 우선	국채, 머니마켓펀드, 담보, 수익증권처럼 운영 효익이 분명한 자산군부터 단계적 상용화 추진
결제 자산 단계전략	리테일 스테이블코인 논쟁보다 토큰화 예금, 기관용 정산 레일, 자금 결제 구간 (money leg) 정합의 우선 확보
권리·명부·수탁 표준화	직접권리와 계약상 청구권의 구분, 공식 보유자 인정, 복구와 예외 처리 권한의 명문화
상호운용 공통규격	은행별 폐쇄망 경쟁보다 메시지, API, 자격 정보, 결제 지시의 공통 표준과 연결 규칙 정비
반복 거래 중심 실험	일회성 파일럿보다 반복 발행, DvP, 환매, 사고 대응까지 포함한 운영 기록 추적 중심의 성과 평가

핵심 포인트

한국의 과제는 토큰 발행 경쟁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토큰이코노미를 통해 결제, 유통, 고객 기반, 자금조달을 다시 설계하는 금융 비즈니스 혁신.